

## '전병우 결승 만루포' 삼성, 12년 만에 8연승 질주 '2위 등극'...LG 3연패 수렁

등록 2026.05.12 22:05:22



[서울=뉴스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8회초 2사 만루에서 삼성 전병우가 만루홈런을 날린 후 홈으로 향하고 있다. 2026.05.12. 20hwan@newsis.com

[서울=뉴스시스]김희준 기자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매서운 뒷심을 선보이며 12년 만에 8연승을 질주했다.

삼성은 12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26 신한 솔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8회 터진 전병우의 결승 만루포에 힘입어 9-1로 완승을 거뒀다.

파죽의 8연승을 질주한 삼성은 시즌 22승(1무 14패)째를 수확, LG(22승 15패)를 3위로 끌어내리고 2위로 올라섰다.

삼성이 8연승을 달린 것은 약 11년 11개월, 무려 4373일 만이다.

삼성은 2014년 5월 13일 대구 한화 이글스전부터 22일 포항 롯데 자이언츠전까지 8연승을 달렸고, 이후 23~25일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와의 홈 3연전을 모두 이겨 11연승을 질주한 바 있다.

LG는 3연패에 빠지면서 순위까지 3위로 떨어졌다.

팽팽하던 승부는 8회 전병우의 홈런 한 방으로 인해 삼성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삼성은 1-1로 따라잡힌 8회초 김성윤의 볼넷과 상대 투수 폭투, 르윈 디아즈의 고의4구로 2사 1, 2루를 만들었고, 박승규가 내야안타를 쳐 만루 찬스를 이었다.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전병우는 왼쪽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작렬해 삼성에 5-1 리드를 안겼다. 전병우는 LG 우완 불펜 투수 장현식의 4구째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걷어올려 홈런으로 연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9-1로 승리한 삼성 박진만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6.05.12. 20hwan@newsis.com  
전병우는 시즌 3호 홈런을 개인 통산 3번째 만루포로 장식했다.

삼성은 9회초 선두타자 이재현이 함덕주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시즌 1호)을 작렬하면서 기세를 더욱 끌어올렸다.

박세혁의 안타와 김성윤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 찬스를 이어간 삼성은 구자욱과 최형우가 연달아 적시타를 날리면서 8-1로 달아났다.

삼성은 디아즈의 우전 안타로 이어간 1사 만루에서 전병우가 희생플라이를 치면서 1점을 추가,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LG는 9회초 수비 도중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양 팀 선발 투수의 호투 속에 7회까지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삼성 선발 최원태는 6이닝 동안 4개의 안타와 3개의 사사구만 내주고 LG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88개의 공을 던졌고, 삼진은 4개를 잡았다.

LG 임찬규는 1회 이후 실점하지 않고 5½이닝 6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맞섰다.



[서울=뉴스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6회말 무사 1,2루 상황에서 삼성 선발 최원태가 LG 오스틴을 병살로 잡은 후 기뻐하고 있다. 2026.05.12. 20hwan@newsis.com

삼성이 1회초 구자욱의 2루타와 르윈 디아즈의 우중간 적시타를 묶어 선취점을 올렸다.

이후 삼성의 1-0 리드가 유지됐다.

최원태는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출루를 허용했으나 득점권까지 보내지 않았다. 5회말과 6회 무사 1, 2루 위기를 자초했지만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계속해서 찬스를 놓치던 LG는 삼성이 불펜을 가동한 7회말 1사 2루에서 박해민이 적시타를 쳐 1-1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불펜이 무너지면서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1-1로 맞선 7회말 2사 1, 2루 위기에 등판해 흥창기를 삼진으로 처리한 삼성 배찬승이 승리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시즌 2승째다.

8회초 전병우에 만루포를 헌납한 장현식은 1이닝 2피안타(1홈런) 2사사구 4실점하고 시즌 2패(3승 2세이브)째를 떠안았다.

©공감언론 뉴스시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